

일제하 경성 지역 여성의 소비조합운동 추진과 특징*

김 이 경**

1. 들어가며
2. 일제하 여성 중심의 협동조합 전개 양상
 - 1) 민간 협동조합의 설립
 - 2) 일제하 협동조합의 여성 참여
3. 경성 지역 여성의 소비조합 추진
 - 1) 경성 지역 여자소비조합 구성과 차이점
 - 2) 경성여자소비조합의 창립과 운영
 - 3) 협동조합 이해와 여성운동의 연결
 - 4) 운영의 위기와 한계
4. 일제하 경성 지역 여자소비조합의 특징
5. 나가며

<국문초록>

본 연구는 1920년대 후반부터 1930년대 초까지 추진된 경성 지역 여자소비조합의 사례를 분석하여 여성들의 경제적 연대와 그 특징을 검토하였다. 일제하에 설립된 최소 500개 이상의 민간 협동조합 중 최소 16개 이상은 여성이 주도하여, 여성만으로 구성된 소비자협동조합이었다. 여성들은 협동조합을 조직하여 물가와 소비 문제를 공동 대응하고자 하였고, 사회경제에 여성이 직접 참여하며 소비자의 단결을 도모했다. 여성들은 개별적으로 상품을 구매하는 단일 소비자를 넘어, 품질 좋은 상품을 저렴하게 구매하기 위하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 2017S1A6A3A01079180)

**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HK연구교수(yesleft@gmail.com)

여 결사체를 구성하고 직접 매장을 개설하였다.

경성 지역에서는 여학생소비조합, 경성여자소비조합, 조선여자소비조합이 추진되었으며, 이 중 경성여자소비조합과 조선여자소비조합은 여성 조합원 100명 이상 모여 매장 운영, 사업 및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경성 지역 여성의 소비조합운동 특징은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식민 지배하에서 사회경제 활동에 여성이 직접 참여하여 소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둘째, 지식인 여성뿐 아니라 여학생, 주부, 직업여성 등 참여자의 폭이 넓었다. 셋째, 세계 협동조합 역사를 비교하여 살펴보면 피식민지 여성들이 주도하고 여성만으로 구성하여 운영된 사례였다. 넷째, 여성단체의 조직적 사업 또는 대응을 넘어 소비 문제에 초점을 맞춰 개별 조직을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 다섯째, 소비조합을 통해 사업 운영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여성운동의 범위가 확대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 주요어: 협동조합, 소비조합, 경성여자소비조합, 경제적 연대, 여성운동

1. 들어가며

본 연구의 목적은 1920년대 후반부터 1930년대 초까지 경성 지역에서 전개된 여성 중심의 소비자협동조합을 통해 여성들의 경제적 연대 과정과 특징을 검토하는 것이다. 그동안 일제하 여성운동의 맥락에서 여러 단체와 개인을 주목하는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여성들이 소비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하여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사회·경제 문제 해결에 직접 참여를 시도한 행위는 아직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¹⁾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제강점기에 추

1) 근대 한국 여성사 연구 주제는 정치(정치활동, 법과 정책, 항일운동), 경제, 사회(여성관과 여성 의식, 여성 교육, 여성운동, 신여성, 섹슈얼리티,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연구), 가족 등으로 구분되는데, 이 중 유일하게 경제 영역만 세부주제가 부재하다. 여성의 경제 활동과 관련하여는 남녀 노동자의 임금 차이, 성별 분업이 다뤄졌다. 박정애, 『한국의 여성사 연구 동향 - 근대 한국 여성사 연구 동향』, 『한국 여성사 연구 70년』,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7, 153~231쪽.

진된 협동조합 중 여자·부인소비조합 양상을 살펴본 후 설립과 해산에 이르는 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경성 지역의 여자소비조합 전개와 참여자의 활동 배경, 시행착오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글에서 언급하는 경제적 연대란 자연재해 구호 자금이나 특정 인물·사건을 위한 단발적인 모금이 아닌, 현금 또는 현물을 모아 소비자협동조합(당시 용어로 소비조합)²⁾을 추진하고 운영한 것을 의미한다. 경제적 연대를 강조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경성과 여성, 그리고 경제 행위의 연결은 개별적인 소비, 단독자로서의 소비자에 주목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식민지 근대 도시라는 경성의 지역적 특징과 상품을 소비하고 관심 갖는 소비자 대중으로 등장한 여성에 초점을 맞춰, 도시 소비문화에 참여하는 피식민지 여성의 주변성과 불균형한 개발이라는 측면이 강조되었다.³⁾

소비는 화폐를 통해 물품을 구매하는 개별적인 행위로 인식된다. 하지만 소매상의 부당한 가격 결정에 항의하거나, 특정 기업에 대한 불매를 통해 소비자는 집단행동으로 의견을 전달하기도 한다. 즉, 소비는 소비자 대중의 중층적인 역할을 보여주는 영역이다. 일제하 경성 지역에서 여성이 중심이 되어 추진된 소비자협동조합은 지식인뿐 아니라 주부, 여학생, 직장인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여성들이 참여하여 구매와 소비를 공동으로 대응한 집단행동이다. 여성들은 상점을 방문하여 개별적으로 상품을 구매하는 단일 소비자를 넘어, 품질 좋은 상품을 저렴하게 구매하기 위하여 결사체를 구성하고 직접 매장을 개설하였다. 아울러 여성들의 협동조합 참여와 조합 내 교육을 통해 사회 참여를 독려하였다.

-
- 2) 이 글에서 언급되는 소비조합은 소비자협동조합의 줄임말로 동의어이며, 본문에서는 소비조합과 협동조합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였다. 1910~1930년대 민간에서는 협동조합을 산업조합, 소비조합, 구매조합 등 여러 용어를 혼재해서 사용하였다. 민간에서는 주로 소비조합이라는 용어를 활용했으며, 그중 약 30%는 협동조합을 상호로 사용했다. 조선총독부에서는 제령을 통해 금융조합, 산업조합을 운영하였기 때문에 민간의 소비조합, 협동조합과는 구분된다.
- 3) 서지영, 「소비하는 여성들: 1920~30년대 경성과 육망의 경제학」, 『한국여성학』 26(1), 한국여성학회, 2010; 김경일, 「서울의 소비문화와 신여성: 1920~1930년대를 중심으로」, 『서울학연구』 19, 서울시립대 서울학연구소, 2002; 김성은·김지희, 「1920~30년대 경성 남촌의 백화점과 신여성의 공간(재)생산에 관한 탐색적 연구」, 『미디어, 젠더&문화』 38(2),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2023.

일제하 민간 협동조합운동의 전개 양상은 1932년 『동아일보』의 전조선협동조합조사(全朝鮮協同組合調査)를 바탕으로 지역·조합원 수·운영 방식 등이 정리되었으나, 지역 또는 단일 조합 사례에 초점을 맞춰 분석한 연구는 충분하지 않다.⁴⁾ 일제하 여성이 주도하여 여성만으로 조직된 소비조합은 다른 나라의 협동조합 역사와 비교하면 특징적인 사례지만, 규모와 운영 등 내용이 거의 검토되지 않았다. 아울러 1930년대까지 여성이 중심이 되어 설립된 협동조합은 최소 16개 이상으로 추산되지만⁵⁾ 여성들이 경제적인 행위에 직접 참여하여 소비조합을 설립한 전개 과정에 대한 분석은 아직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

여성이 주도한 협동조합에 관한 연구는 주요 구성원과 설립, 운영, 해산에 이르게 된 과정 및 의의를 분석하는 것까지 나아가기보다는 협동조합과 여성의 참여를 통사적으로 접근하는 정도이다.⁶⁾ 경성여자소비조합에서 임원을

4) 김현숙(1987), 오미일(2008), 김이경(2022a)의 연구에서 민간 협동조합의 지역 분포, 인원, 자금 등 대략적인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조형열(2019)과 김권정(2008), 조성운(2003)의 연구에서는 협동조합운동사의 창립과 활동, 기독교청년단체의 협동조합 추진, 천도교 농민공생조합 등 단체를 중심에 두었고, 지역과 단일 협동조합의 사례를 다룬 연구는 충분하지 않다. 지역과 단일 사례로는 원산쟁의 가운데 소비조합의 역할을 다룬 현명호(2023)의 연구와 협동조합운동사의 대표사례이자 협동조합적 운영을 강조한 함창협동조합을 분석한 연구가 있다. 또한 제일조선인 연구에서 오사카 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된 소비조합이 다뤄졌다. 김현숙, 「일제하 민간협동조합운동에 관한 연구」, 『사회와역사』 9, 한국사학회사학회, 1987; 오미일, 「협동조합론과 협동조합운동」, 『경제운동』,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2008, 169~275쪽; 김이경, 「일제하 한국 협동조합운동의 형성과 전개: 개념·주체·연대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2a; 조형열, 「협동사회 실현을 위한 협동조합운동사의 도전기」, 『한국 협동조합운동 100년사 I』, 가을의아침, 2019, 99~126쪽; 김권정, 「1920~30년대 한국기독교의 농촌협동조합운동」, 『승실사학』 21, 승실사학회, 2008; 조성운, 「日帝下 朝鮮農民共生組合의 組織과 活動」, 『동학연구』 13, 한국동학학회, 2003; 현명호, 「1920년대 일본 노다와 조선 원산의 노동조합운동 비교: 노동학교, 소비조합, 어용노조를 중심으로」, 『역사연구』 46, 역사학연구소, 2023; 김이경, 「일제하 경상북도 함창협동조합 설립과 모델의 확산」, 『인문과학』 86, 성균관대 인문학연구원, 2022b; 정혜경, 「1930년대 初期 오사카(大阪)地域 協同組合과 朝鮮人運動」, 『한일민족문제연구』 1, 한일민족문제학회, 2001; 김인덕, 「1930년대 중반 오사카 제일조선인의 삶과 상호부조」, 『자율과 연대의 로컬리티』,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6.

5) 기록되지 않은 사례를 포함하면 더 많은 수의 소비조합이 있을 것이다.

6) 이미연, 「일제시대 여성 소비조합과 해방 후 1960~70년대 여성 소비조합 운동」, 『한국 생활협동조합운동의 기원과 전개』, 푸른나무, 2012, 67~78쪽; 정요섭, 『한국여성운동사』, 일

맡은 인물 중 한 명인 황애덕과 관련해서는 여성 지식인의 사회활동을 다루는 연구에서 소비조합 활동이 부분적으로 다루졌다.⁷⁾ 이외에 1920년대부터 1930년대에 이르는 시기에 주부 개념의 변화와 소비 주체로 등장하는 주부 연대체를 살펴볼 때, 소비조합이라는 새롭게 등장한 조직을 언급하는 것에 그쳤다.⁸⁾

본 연구에서는 일제하에 설립된 여성 중심의 협동조합 전체 양상을 살펴본 후 경성 지역에서 전개된 여자소비조합의 추진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여성들이 소비와 생활의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어떠한 시도를 하였는가에 초점을 맞춰 여성의 경제 및 소비 주체성에 대한 시행착오를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여성들이 주도하여 지역에서 설립한 협동조합 사례를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를 ‘소비’라는 행위로 연결한 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당시 주부, 여학생, 직장인, 지식인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일반 대중은 물건의 가격을 직접 결정하고, 소비를 통해 형성된 잉여금을 지역 사회의 야학, 재난 등을 위해 활용하고자 했다. 또한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를 독려하고 여성 중심의 소비자 역할을 강조하였다.

본문에서는 『동아일보』, 『조선일보』, 『신여성』, 『별건곤』, 『삼천리』 등 언론 자료를 통해 여성 주도의 협동조합 양상을 파악하고, 경성 지역의 여학생 소비조합과 경성여자소비조합, 조선여자소비조합의 차이와 특징을 밝혔다. 특히 임원의 배경과 창립 과정, 협동조합의 이해, 운영 방식에 대한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경성여자소비조합 사례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영국과 일본 등 다른 나라 여성의 협동조합 참여와 비교하여 일제하 경성 지역 여성의 협동조합 특징을 검토하였다.

조각, 1974, 152쪽; 고지영 외, 「근대 제주지역 여성운동 연구」(연구보고서), 제주여성가족연구원, 2023, 102~104쪽.

7) 김성은, 「1930년대 황애덕의 농촌사업과 여성운동」, 『한국기독교와 역사』 35, 한국기독교 역사연구소, 2011, 141~180쪽; 김성은, 「1920~30년대 미국유학 여성지식인의 현실인식과 사회활동」,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김성은, 「제2장 황애덕의 농촌활동과 여자소비조합」, 『한국 근대 여성지식인』, 경인문화사, 2023, 110~117쪽.

8) 이영아, 「한국 근대 ‘주부’ 개념의 정착과 주부 역할의 변화 양상」, 『구보학회』 25, 구보학회, 2020, 236~245쪽.

2 일제하 여성 중심의 협동조합 전개 양상

1) 민간 협동조합의 설립

일제하 한국에서 민간 협동조합을 설립한 사례는 1920년부터 확인할 수 있다. 그 이전인 1910년대에는 한국의 산업 발전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일본 산업조합법(産業組合法)의 일부 내용이 소개되고,⁹⁾ 조선총독부에 의한 금융조합이 1914년부터 시행되면서 협동조합이란 관에 의한 통치와 민의 협력이 혼재된 것으로 이해하였다. 또한 산업조합, 소비조합, 구매조합, 협동조합, 합작사 등 다양한 용어가 혼용되었다. 1920년 『동아일보』가 창간 직후부터 식민지 조선의 자주경제와 중간상인의 폭리에 대한 소비자의 대응, 금주와 단연을 통한 절약을 강조하며, 경제적 방법으로 소비조합을 소개하였다.

『동아일보』에서는 소비조합의 개념과 역사, 운영 방식을 1920년에 1면에 13회에 걸쳐 소개하고, 1922년과 1923년에도 소비조합을 통한 권리 획득을 강조하였다.¹⁰⁾ 실제로 지역에서 소비조합이라는 이름으로 창립을 준비하고, 매장을 운영하는 사례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1920년 목포소비조합(1920.05.15 창립)을 시작으로 조선노동공제회소비조합(1922년), 원산소비조합(1922년) 등이 창립되었다. 1920년대 전반기에는 물산장려운동의 전개와 함께 소비조합을 통해 중간상인의 착취를 배제하고, 조선인이 생산한 물품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자주경제의 방법론으로 소비조합의 유효성이 강조되었다.¹¹⁾ 1926년 협동조합운동사(協同組合運動社) 창립 이후, 협동조합의 자치·자립·민주적

9) 崔瑗浩, “朝鮮人の生活과 産業組合의 必要”, 『학지광』 12, 1917.04.

10) “消費組合은 何오(一)~(九)”, 『동아일보』, 1920.05.10.~05.18.; “消費組合制度의 普及(一)~(三)”, 『동아일보』, 1920.06.18.~06.20.; 鮮于全, “物價騰貴에 對한 民間의 對策을 論하노라(二)~(六)”, 『동아일보』, 1922.01.05.~01.14.; 鮮于全, “産業組合에 對하야(一)~(十四)”, 『동아일보』, 1923.02.22.~03.13.

11) 조선물산장려회에서는 1923년 5월 정성소비조합 창설을 준비하면서 1구에 5원, 총 자본금 5만 원을 목표로 조합원을 모집하였다. 또한 인천에서는 발기인 86명을 모아 1923년 3월 인천물산소비조합을 창립·개점하였다. 公民, “消費組合의 來歴과 經營”, 『산업계』 1, 1923.12.; 金喆壽, “消費組合과 로트델식의 特點”, 『산업계』 2, 1924.01.; 金喆壽, “消費組合과 로트델식의 特點(2)”, 『산업계』 3, 1924.03.; “仁川消費組合”, 『동아일보』, 1923.01.15.; “二百名이 木周衣 인천에 이러나는 물산장려운동”, 『동아일보』, 1923.01.02.; “消費組合의 發起總會”, 『동아일보』, 1923.01.30.; “仁川消費組合”, 『동아일보』, 1923.04.13.

의사결정을 강조하며 운영한 경상북도 함창협동조합이 모범 사례로 알려지면서 관계 조합과 차별되는 협동조합의 운영 방식에 대한 이해가 확산되기 시작했다.

민간에서 설립한 협동조합은 대부분 경제적인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었다. 마을과 시장이 멀리 떨어져 있었던 지역에서는 개별적으로 시장을 방문하거나 이용하는 것은 모두에게 손해라고 인지하고, 마을에서 자금을 모아 공동구입, 공동판매하는 협동조합을 설치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경제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도시 노동자들은 월급 일부를 저축하여 공장 내에 일상용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상점을 협동조합 형태로 설립하였다. 또한 많은 이들은 일본인, 중국인 상인에게 장악된 상권에서 일상용품을 구입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불리할 뿐 아니라 제멋대로인 가격 정책에 수동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지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20년대 초부터 1938년까지 최소 500개 이상의 민간 협동조합이 설립되었고, 대부분은 소비자협동조합 형태로 운영되었다.¹²⁾

협동조합에 참여한 구성원은 일본과 미국 등의 유학을 거친 지식인에 국한되지 않았다. 시장 방문 비용을 모아 공동구매, 공동소비가 가능한 매장을 개설한 농촌 지역의 농민, 질 좋은 생필품과 식량을 구입하여 가족의 생활을 향상하기 위한 노동자, 가정 살림을 꾸려가는 데 익숙한 주부 등이 협동조합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지식인, 농민, 노동자, 주부 등이 협동조합에 참여한 것은 물품과 가격을 직접 결정할 수 있다는 능동적인 소비자 인식의 단초를 보여준다.

2) 일제하 협동조합의 여성 참여¹³⁾

지역에 설립된 여러 소비조합과 협동조합운동사, YMCA, 농민공생조합 등 주요 단체가 주도한 협동조합의 경우 대부분 남성이 설립을 주도했다. 남

12) 민간 협동조합의 수치는 다음의 논문과 자료에서 출처를 확인할 수 있으며, 발굴되지 않은 조합 및 자료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김이경(앞의 논문, 2022a), 77~81쪽, 265~283쪽(부록); “朝鮮農民社略歷”, 『農民』 4(10), 1933.10, 27쪽.

13) 여성의 소비조합 참여와 경성 지역 사례는 필자의 박사학위논문(앞의 논문, 2022a) 144~180쪽의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성들이 주요한 역할을 맡고, 사회운동에 앞장선 현상은 협동조합에서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협동조합이 발달한 영국에서도 여성협동조합길드(Women's Co-operative Guild) 결성 전에는 남성이 중심이 되어 운영하고, 운동을 이끌었다.¹⁴⁾ 한국보다 이른 시기에 협동조합이 설립된 일본에서도 여성은 운영에 참여하기보다 부인회에서 활동하는 정도였다. 한국의 경우 1920년대 후반부터 경성, 강원도, 경상도 등 지역에서 여학생, 노동자와 농민의 아내, 주부 등이 주도하여 여성만으로 구성된 소비자협동조합이 설립되기 시작했다.

1910년대 이후 애국부인회, 조선여자청년회, 조선여자기독교청년회, 조선여성동우회, 중앙여자청년동맹, 근우회 등 여성 단체가 창립하고, 지역에 지부를 설치하는 등 전국적으로 여성단체가 결성되었다. 이 가운데 토산애용부인회(土産愛用婦人會)에서는 1923년에 여성 중심의 소비자 단체를 추진하였다. 토산애용부인회에서는 조선물산장려운동의 일환으로 조선인 스스로 생산하고 소비하는 '자작자급(自作自給)'과 '내 살림은 내 것으로'라는 슬로건을 강조하며 토산물품 이용을 위한 상점 설립을 준비하였다. 부인회에서는 출자금 1구에 10원을 책정하고, 1회에 5원씩 불입하는 방식으로 자본금 4만 원을 모아 유한책임조합 토산애용부인상회를 설립할 계획을 세웠다.¹⁵⁾ 하지만 물산장려운동으로 토산품 가격이 급격히 오르는 부작용이 발생하던 상황이었고, 토산품만으로는 소비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어려웠다. 결국 토산애용부인상회를 설립하는 것까지 진행되지는 못했다.¹⁶⁾ 아울러 당시 상황은 조선물산장려회가 물품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균형을 맞추지 못하고, 가격을 조절하지 못하는 등의 과정을 거치며 활동력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부인회의 활동도 축소될 수밖에 없었다.

여성의 경제적 참여와 소비와 관련된 조직 결성은 토산애용부인상회 이후

14) G. D. H. Cole, *A Century of Co-operation*, 정광민 옮김, 『영국 협동조합의 한 세기』, 그물코, 2015, 335~336쪽.

15) “土産愛用婦人商會創立計劃”, 『동아일보』, 1923.05.14.; “土産愛用婦人商會”, 『동아일보』, 1924.06.01.

16) 자본금 4만 원을 모집할 계획이었으나 1924년 6월을 기준으로 약 1천원을 모았다. “土産愛用婦人商會”, 『동아일보』, 1924.06.01.

약 3~4년이 지나고 시도되었다. 여성 중심으로 설립·운영된 사례는 최소 16개로 다음과 같다. 1923년 경성 지역의 토산이용부인상회부터 시작하여 제주의 신좌소비조합(1927년), 경기도 광주의 부녀자소비조합(1928년), 경성의 경성여자소비조합(1929년)과 조선여자소비조합(1933년), 함경북도의 회령부인소비조합(1930년), 함경북도의 주을부인소비조합(1930년), 함흥부인소비조합(1930년, 함흥), 강원도의 원주부인소비조합(1931년)과 강릉여자소비조합(1931년), 경상남도의 하동여자소비조합(1931년), 경상북도의 고령부인소비조합(1931년)과 관심부인소비조합·내동부인소비조합(1934년), 일본 오사카의 대동소비조합(1931년)과 재일여공소비조합(1930년대 초 추정) 등이다.

1926년 조선산업조합령이 시행되어 사단법인 형태로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었지만, 한국인들은 자본 활용과 조직 운영의 자율성이 제한된다는 점을 의식하여 임의조직 형태로 협동조합을 설립했다. 1919년부터 1938년까지 최소 500개 이상의 민간 협동조합이 설립되었는데, 이 중 여성이 주도하고 여성이 중심이 된 사례는 최소 16개이며 부인회 또는 여자청년회 등이 함께 추진한 조합을 포함하면 그 수는 더 증가한다.¹⁷⁾ 아울러 조합원으로 참여한 여성은 최소 1,500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시기적으로는 1928년부터 1931년 사이에 여자소비조합 또는 부인소비조합을 상호로 한 협동조합이 집중적으로 설립되었다. 지역적으로는 경성 지역뿐 아니라 강원도, 경상도, 함경도, 그리고 일본 간사이 지역에서도 여자·부인소비조합이 설립되었다. 여성들은 ‘여성의 경제적 각성’, ‘중간상인의 이익 철폐’, ‘가정생활 소비 필수품의 최저 시가 공급’ 등을 목적으로 소비조합을 설립했다. 여성 중심의 소비조합은 작은 규모의 경우 30명(경기도 광주 부녀자소비조합)을 모아 창립했고, 300명의 규모화(조선여자소비조합)를 이룬 사례도 있었다.

이 시기에 여자소비조합이 등장한 배경에는 세계경제공황으로 인해 통제되지 않는 물가와 일자리 문제, 그리고 생활의 악화를 여성과 주부의 가정 내

17) 정평소비조합(1929년)과 고베조선인소비조합(1935년) 등이 대표적이다.

절약, 가정 개량의 역할자로 강조한 담론과 연결된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에서는 각각 1929년과 1930년에 ‘가정부인’ 코너와 ‘주부상식’이 연재되어 주부가 알아야 할 각종 정보를 제공했다. 특히, 주부에게 강조된 것은 가정에서 살림을 절약하는 소비자이자, 가정 살림의 주체적인 역할이었다. 1920년대 후반과 1930년대 초에 들어, 주부의 살림 절약과 예산에 맞춘 소비 생활을 계획하기 위해 가계부 작성이 제안되거나,¹⁸⁾ 집안 살림을 파악하고 있는 여성이 가정 경제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담론이 등장했다. 하지만 살림을 운용하는 자금을 관리하는 이는 남성 가장이었다.¹⁹⁾ 지식인들이 강조했던 주부의 가정 경제와 회계의 주체화, 그리고 근대적 가정으로의 재편은 현실과 괴리가 있었던 것이 현실이었다.²⁰⁾

그 가운데 소비자협동조합에서 여성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내용이 언론에 언급되기도 했다.²¹⁾ 담론과 현실의 틈새에서 설립된 여자·부인소비조합은 여성이 스스로를 소비자로 인식하고, 공동행동을 취한 사례이다. 근우회 임원이 중심이 되어 소비조합이 설립한 지역도 있었고,²²⁾ 여성 및 지역 단체와 별개로 여성들이 미국 한 숟가락씩 저축하여 마을에 필요한 소비조합을 창립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협동조합이 설립되었다.²³⁾

18) 방정환은 월급 30원을 기준으로 미리 예산을 짜서 소비하고 가계부를 작성하여 저금까지 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방정환, “살림사리 新講義”, 『신여성』 5(5), 1931.06, 96~101쪽 참고.

19) 한형성(2016)은 1927년과 1931년 『동아일보』에 22개 가정에서 직접 보내온 가정예산을 분석하였다. 가정예산의 투고자 중 대다수는 남성(18개 가정)이며 여성(4개 가정)은 소수에 그쳤다. 당시 전체 인구 중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이들의 다수가 남성이라는 점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투고 수이기는 하나, 1920~30년대 지식인들의 가정 경제를 책임지는 주체를 주부로 해야한다는 논의는 현실과 괴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형성, 「1920~30년대 한국인 가정의 경제생활」, 『史林』 55, 수선사학회, 2016, 261~263쪽.

20) 한형성, 「1920~30년대 가정회계와 가계부 담론」, 『경역사연구』 30(3), 한국경영사학회, 2015, 102~107쪽.

21) 韓秀龍, “消費組合의 主要成功條件(二)”, 『동아일보』, 1931.02.19.

22) 근우회 임원이 주도하여 설립되거나 소비조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지역은 하동, 고성, 양산, 동래(부산), 평양, 회령, 주을, 함흥 등이다.

23) 원주의 경우 원주노동회에서 협동조합 설립을 추진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가정에서 살림하는 여성들이 소비조합을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남성 노동자의 부인과 지역 여성이 참여하여 원주부인소비조합을 창립하였다. 경기도 광주군 지역에서는 농촌 부녀자들이 하루에 소액을 저축하여 소비조합을 설립하기도 했다.

3. 경성 지역 여성의 소비조합 추진

1) 경성 지역 여자소비조합 구성과 차이점

경성 지역에서는 1929년 5월, 8월, 그리고 1933년 1월, 세 차례에 걸쳐 여성 중심의 소비자협동조합이 추진되었다. 이 중 매장 개설까지 이어진 조합은 경성여자소비조합과 조선여자소비조합이다. 조선여학생소비조합(경성여학생소비조합)²⁴⁾은 경성 지역에서 가장 먼저 시도되었던 사례로 1929년 5월, 여자상업학교를 졸업한 약 서른 명의 여학생이 중심 역할을 맡았다.²⁵⁾ 경성여자상업학교에서 경제 문제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이로 인한 여성의 경제적 자각과 독립의 중요성을 강조한 교육을 추진한 것으로 볼 때, 졸업생들의 소비조합 추진은 경제적 참여의 시도로 볼 수 있다.²⁶⁾ 5월 19일, 이들은 종로구 수송동 각황사에 모여 발기인회(사회: 김인철)를 개최하여 창립준비위원 13인을 선출하였다.²⁷⁾ 창립준비위원의 역할은 정관작성위원회를 구성하고 조합원을 모집하는 것이었다.

종로경찰서에서는 이들의 활동을 치안방해라는 이유로 설치를 금지했다.²⁸⁾ 하지만 창립총회준비위원회에서는 5월 23일에 명칭을 조선여자소비

24) 1929년 5월에 창립을 준비한 이 조합의 경우 여학생소비조합, 조선여자소비조합, 경성여자소비조합이라는 명칭으로 기록 되어있다. 같은 해 5월 23일에 조선여자소비조합으로 상호를 변경한 것을 참고하여, 이 글에서는 조선여학생소비조합으로 표기하고, 괄호에 경성여학생소비조합을 병기하였다.

25) 창립 준비와 관련한 기사에서는 여자상업학교로 표기되어 있는데, 지역과 시기를 감안하면 경성여자상업학교를 언급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경성여자상업학교는 1925년 8월 10월 견지동에서 교육을 시작하였고, 1926년 4월에 여자상업학교로 설립인가를 받아 운영되었다. 경성여자상업학교와 관련해서는 박현옥, 「경성여자상업학교 명휴를 통해 본 여학생의 사회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83,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23; 박현옥, 「일제하 경성의 자본주의 소비문화와 여자실업학교」, 『서울과 역사』 113, 서울역사 편찬원, 2023; “女子商業開校”, 『조선일보』, 1926.04.06. 참고.

26) 박현옥, 앞의 논문, 58~59쪽 참고.

27) 경성여학생소비조합 창립준비위원 13인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이궁한(李弓漢), 김련봉(金蓮峰), 윤차진(尹次振), 김수옥(金秀玉), 신무선(申戊先), 이용희(李容姬), 주용애(朱容愛), 강경숙(姜京淑), 박정석(朴貞錫), 배정옥(裵貞玉), 김순열(金順烈), 엄경춘(嚴慶春), 김인철(金仁哲). “市內學生網羅 組組發起”, 『조선일보』, 1929.05.21.; “男女各校學生 消費組合發起”, 『동아일보』, 1929.05.21.

28) “學生消費組合男女共禁止, 赤の息を疑はれて”, 『朝鮮新聞』, 1929.05.22.; “男女學生發起的

조합으로 변경하고, 운영 방식을 논의하였다.²⁹⁾ 부서를 서무부(이귀중, 윤차진, 이궁한), 재무부(엄경춘, 김순열), 정관기초부(김인철, 김계옥), 선전부(이소정 외 5인)로 나누어 활동을 담당하기로 하고, 출자금은 1구에 3원이며 세 번에 걸쳐 불입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조선여학생소비조합(경성여학생소비조합)은 설치 금지에도 불구하고 창립총회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상호를 변경하는 행보를 보였지만 이후 활동은 파악되지 않는다. 1933년에 창립한 조선여자소비조합과 비교하면 두 조합의 상호는 동일하지만, 구성원이 겹치지 않고 연결 지점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별개의 조합으로 볼 수 있다.

조선여학생소비조합의 소식이 보도된 후 3개월이 지난 1929년 8월 18일, 경성여자소비조합이 종로 견지동 시천교당에서 창립을 준비하였다. 개최된 발기인회에서 황애덕(黃愛德), 황신덕(黃信德), 김수준(金繡準), 우봉운(禹鳳雲), 김정원(金貞媛), 김상순(金相舜), 신정균(申貞均), 이자경(李慈卿), 이옥현(李玉顯), 강정임(姜貞任), 강금순(姜今順), 한신광(韓晨光), 김선(金善), 엄경춘(嚴慶春), 윤차진(尹次振), 서석전(徐石田) 등이 창립준비위원회와 규약초안위원으로 선출되었다.³⁰⁾ 이 중 황애덕은 창립위원장을 맡는 동시에 우봉운, 김정원과 함께 규약초안위원을 담당하였다.³¹⁾

경성여자소비조합과 여학생소비조합의 구성원을 살펴보면 두 명의 임원(엄경춘, 윤차진)이 두 조합에 모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지만, 이 외에는 구성원이 겹치지 않는다. 특히 경성여자소비조합의 창립준비위원은 근우회에서 활동하는 이들이 다수였다는 점에서 여학생소비조합과 차이가 있다. 경성여자소비조합의 창립준비위원인 황애덕, 황신덕, 김수준, 김상순, 김정원, 우봉운, 신정균 등은 근우회가 창립된 1927년부터 소비조합 창립 준비를 하던 1929년 사이에 근우회 임원 역할을 맡고 있었다. 황신덕은 1927년 4월부터

消費組合을 禁止”, 『조선일보』, 1929.05.22.

29) “朝鮮女子消組”, 『동아일보』, 1929.05.25.

30) 경성여자소비조합 창립준비와 기사에서 서석전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다. 하지만 『신여성』 54호에 경성여자소비조합이 근우회 주요 간부인 서석전(당시 근우회 경성지회 집행위원장)이 중심이 되어 발기회가 구성되었음이 기록되어 있다.金玉葉, “京城女子消費組合解體의 顛末”, 『신여성』 6(12), 1932.12, 61쪽.

31) “各方面女性網羅 女子消組創立”, 『동아일보』, 1929.08.20.

근우회 창립준비위원과 규약초안위원으로, 1929년 8월에도 본부 정치문화부에서 활동했다.³²⁾ 김수준과 우봉운³³⁾ 그리고 김정원은 1928년 2월 근우경성지회의 발기인으로 참여하였고, 1929년 7월에도 근우대회에서 중앙집행위원과 중앙검사위원으로 활동했다³⁴⁾. 신정균 또한 1928년 4월 근우회경성지회 설치 준비 시 집행위원과 대의원을 맡았으며, 우봉운, 김수준과 함께 경성지회 재무부와 중앙검사위원으로 활동했다.³⁵⁾ 1928년 미국에서 귀국한 황애덕은 일본과 미국 유학 당시, 그리고 이전에도 송죽회(松竹會), 동경여자유학생회, 근화회(槿花會) 등 여성단체를 결성하여 참여했으며, 근우회에서도 근우회관기성위원회 및 강사로 활동하였다.³⁶⁾ 아울러 경성여자소비조합 창립에 참여했던 임원 중 일부는 근우회 활동 이전부터 애국부인회, 불교여자청년회, 조선여성동우회, 경성여자청년동맹, 경성여자청년회 등 여성단체에서 독립을 위한 여성의 실력양성과 여성 권익 등을 주장했다.³⁷⁾

32) “각계녀성을 망라한 근우회 발기총회”, 『동아일보』, 1927.04.28; “創立總會委員會”, 『조선일보』, 1927.04.28; “權友會委員會”, 『동아일보』, 1927.05.31; “權友常務委員 部署를 新決定”, 『조선일보』, 1929.08.03.

33) 임원 중 황애덕, 황신덕의 활동은 정리된 연구가 있으나 그 외 인물은 구체적인 이력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다만 최근에 발간된 이임하의 연구를 통해 우봉운의 출생과 1948년까지의 활동을 확인할 수 있다. 이임하, 「우봉운-억압과 떨시와 굴종에서 단연히 튀어 나오라!」, 『일제에 맞선 페미니스트』, 철수와영희, 2023, 22~68쪽.

34) 김수준과 우봉운은 1928년 7월 근우대회에서 감사위원으로 선출되었고, 같은해 8월에는 근우회경성지회 선전조직부와 재무부에서 활동했다. 1929년 7월 대회에서는 우봉운과 김정원은 중앙집행위원으로, 김수준은 중앙검사위원이 되었다. “盛況으로 發起된 權友京城支會”, 『동아일보』, 1928.02.23; “權友會大會 徹夜三日間”, 『동아일보』, 1928.07.17; “權友京城支會의 新陣容”, 『동아일보』, 1928.08.05; “苦熱三日만에 終了한 權友大會”, 『동아일보』, 1929.07.31.

35) “盛大히 열린인 權友會京支大會”, 『조선일보』, 1928.04.02.; “權友京城支會의 新陣容”, 『동아일보』, 1928.08.05.

36) “權友會館期成委員會”, 『동아일보』, 1929.09.04; “女性講演 權友京支主催로”, 『동아일보』, 1929.11.22.

37) 근우회 활동 이전, 김수준은 조선여성동우회, 경성여자청년회 등에서 활동했으며, 우봉운은 조선불교여자청년회와 조선여성동우회, 경성여자청년동맹 등에서 주요 역할을 맡았다. 신정균 또한 여성동우회에서 활동했으며, 황신덕은 중앙여자청년동맹 참여했다. “女性同友總會”, 『동아일보』, 1925.02.26; “경성에서 활동하는 여자단체(四) 경성여자청년회”, 『조선일보』, 1925.12.20; “경성에서 활동하는 여자단체(五) 조선여성동우회”, 『조선일보』, 1925.12.21; “朝鮮女性運動의 史的考察”, 『동아일보』, 1928.01.06.

1933년 1월에 창립한 조선여자소비조합은 앞서 언급한 두 조합과 구성원이 겹치지 않는다. 조선여자소비조합 발기인회는 김이수(金尼洙), 오덕권(吳德券), 이영숙(李英淑), 권경옥(權景玉), 장세량(張世良), 홍은순(洪銀順) 등으로 구성되었고, 창립총회에서 김이수, 이영숙, 조명숙, 권경옥, 홍은순 등이 임원으로 선출되었다.³⁸⁾ 주요 구성원 중 구체적인 약력이 확인되는 인물은 조합장을 맡은 김이수이다. 김이수는 일본 교토화장학교를 거쳐 귀국 후 문화화장연구소를 설치하고, 조선인에게 적절한 미용과 화장품 제조를 연구하고 부녀자에게 미용 상담을 진행하는 일을 하였다.³⁹⁾

언론에서는 조선여자소비조합의 발기인을 구식여성들에 의해 조직된 것으로 보도하였다.⁴⁰⁾ 구식이라는 용어는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우선 조선여자소비조합 임원 및 구성원 중에서 근우회와 같은 여성단체에서 활동하거나 새로운 학문을 익힌 인물을 찾기 어렵고, 사회운동에 참여하는 여성보다 가정 주부가 눈에 띄었기 때문에 신여성이 아닌 구식여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⁴¹⁾ 조합장 김이수가 여성의 차별 대우에 대한 비판적인 글을 작성하기도 했으나,⁴²⁾ 기사 한 편 외에는 관련 내용이나 활동을 찾기는 어렵다.

경성 지역에서 추진된 세 개의 여자소비조합을 비교하면 순차적으로 활동이 계승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미세한 연결고리와 발전 과정을 발견할

38) “朝鮮女子消費組合創立總會盛大”, 『매일신보』, 1933.01.11; “女子消費組合”, 『동아일보』, 1933.01.11.

39) “미용을 연구하던 金尼洙女史는 文化化粧연구소를 새로 설치”, 『동아일보』, 1930.10.31; “녀자의 미용과 화장에 대한 지식(一)”, 『동아일보』, 1932.04.01.

40) 다음 두 개의 기사에서는 조선여자소비조합이 ‘구식여성’ 또는 ‘구식여자’가 중심이 되어 조직되었다고 보도하였다. “女子消組創立”, 『중앙일보』, 1933.01.11; “朝鮮女子消組總會”, 『동아일보』, 1933.04.11.

41) 신여성은 구여성과 구별되는 용어로 학력, 직업, 선진문화 향유, 새로운 학문의 익힘 등이 기준이 되었다. 보통 여자고등보통학교 이상을 수료했거나 가정을 넘어선 사회활동, 여성의 물리적 지위에 대한 개선에 참여하는 이를 일컬었다. 전경옥 외, 「4장 여성의 사회참여」, 『한국 근현대 여성사-정치·사회1』, 모티브북, 2011, 246~252쪽; 김수진, 『신여성, 근대의 과잉』, 소명출판, 2009; 김경일, 『여성의 근대, 근대의 여성』, 푸른역사, 2004 참고.

42) 김이수는 여성의 권리와 생명을 존중하기 위해 남성과 여성의 “차별대우와 전제 수단을 격멸”하고 여성에게만 정조를 강조하는 사회를 비판했다. “男性에 對한 宣戰布告”, 『동아일보』, 1932.01.01.

수 있다. 여학생소비조합과 경성여자소비조합의 임원 중 두 명만 겹친다는 점은 두 조합이 별개라는 점을 의미하지만, 여자소비조합의 의지를 이어간다는 것을 간과하기 어렵다.⁴³⁾ 또한 조선여자소비조합은 근우회 활동 및 여성단체 참여를 기준으로 비교하면 구성원이 겹치지 않으며, 그 성격도 거의 다르다. 하지만 창립 당시 조합원이 200명에 이를 만큼 여성의 관심이 높았고, 『동아일보』에서 여성들이 소비조합이 적힌 비석을 다시 곧게 세우는 그림을 전면에 소개하며 1933년 1월의 대표적인 이벤트로 보는 것으로 볼 때 경성여자소비조합이 지역에 꽤 알려졌고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⁴⁴⁾

아울러 가정 소비에 필요한 물품의 저가 공급과 잉여금 배당, 조합원 편의 등을 통해 여성들의 경제적 독립과 사회 참여를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또한 점차 사업 범위가 확대되고, 이용과 배당과 지역사회 참여 등 협동조합 원칙을 실현하는 등 운영 과정의 발전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 절에서는 세 개 소비조합 중 추진 과정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경성여자소비조합을 중심으로 운영 및 구성원의 특징을 살펴보았다.⁴⁵⁾

2) 경성여자소비조합의 창립과 운영

앞서 언급한 것처럼 경성여자소비조합은 1929년 8월 18일 오후 3시 종로 견지동 시천교당에서 발기회를 개최하였다. 창립준비위원장 황애덕의 사회로 진행된 발기회에서는 조합 설립과 운영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인 조합원 자격, 가입 방법, 출자금, 출자 방식, 규약과 강령 초안, 조합원 모집, 홍보 방식, 상점 위치, 경영 방법, 창립사무소 개소 등이 논의되었다. 출자 금액은 1구에 5원이었지만, 즉납이 아닌 조합원 상황에 따라 분납이 가능했다. 조합원 가입 대상은 여성을 중심으로 특정 직군이나 지역을 한정하지 않고 가정

43) 1929년 광주학생운동이 전국적인 학생운동으로 확산될 때, 경성 시내의 경성여자상업학교, 이화여자고등보통학교 등 여학생들이 근우회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참고할 수 있다. 정현백 외, 『4장 근대의 여성』, 『글로벌시대에 읽는 한국여성사』, 사람의무늬, 2016, 211쪽.

44) “漫画一年史海內編”, 『동아일보』, 1934.01.01.

45) 경성여자소비조합의 경우 다른 사례보다 임원 활동, 매장 주소, 회의 과정, 이사회 내 갈등과 재정 문제, 예산 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남아 있다. 이에 경성여자소비조합을 주요하게 다루었다.

부인, 직업부인(職業婦人), 학생 등으로 넓었다. 또한 창립 준비를 위해 인사 동 태화여자관(泰和女子館)에 임시사무소를 두기로 하였다.

경성여자소비조합은 발기회 이후 네 차례의 준비위원회를 거치고, 다시 발기인회를 여는 등 빠른 속도로 진행되지는 않았다.⁴⁶⁾ 다만 1929년 11월 10일 오후 2시 천도교 기념관에서 개최된 두 번째 발기인회에서는 표어가 선정되는 진전이 있었다. 경성여자소비조합은 중간상인에 의한 부당한 거래를 공동구매를 통해 해소하며, 이 과정을 통해 사회적 훈련을 쌓아가자는 의미로 “우리 조합은 일체 단결하여 우리 손으로 사고 팔자”, “우리 조합은 중간상인들이 가질 이익을 우리가 획득하자”, “우리 조합으로서 실사회 사정을 체험하며 조합원 공동생활에서 사회적 훈련을 얻자”를 표어로 결정하였다.⁴⁷⁾

두 번째 발기인회가 열린 후 4개월이 지난 1930년 3월 9일, 조선교육협회에서 경성여자소비조합의 창립총회가 개최되었다. 약 50명이 참석한 창립총회는 김수준이 개회를 알리며 시작하였다. 이극로의 “생산과 소비 및 상인의 역사적 유래” 강의 후, 사무 방침(진행: 황애덕)과 입회 방식(진행: 김수준), 부서 운영(진행: 김수준)을 논의하였다. 이 과정에서 주목할 점은 조합원에 의해 선출되어야 할 임원을 이사회에 일임했다는 것인데, 후술하겠지만 경성여자소비조합은 협동조합과 관련한 주요한 부분을 간과하고 진행한 측면이 있다. 임원 선출은 창립총회 다음날인 3월 10일, 제1회 이사회에서 진행되었고, 김수준이 이사장을 맡게 되었다. 이외에 황애덕은 전무이사로, 김정원과 김상순은 상무이사로 선임되었다.⁴⁸⁾

경성여자소비조합은 여성 조합원 102명으로 창립하였다. 당시 경성여자소비조합에 대해 “조합원은 102명, 그것이 모두 여자들이다. 근우회의 쟁쟁한 투사도 있고, 학교에서 교편 잡는 여성도 있고, 은행 회사의 여자 사무원

46) 1929년 11월에 창립총회를 열 계획이었으나 내부 사정으로 발기인회를 재개최했다. “女子消組의 發起人大會”, 『조선일보』, 1929.11.09; “女子消組發起會”, 『동아일보』, 1929.11.09; “『우리의 손으로 사고팔자』 女子消費組合創立”, 『중외일보』, 1929.10.26.

47) 김수준, “消費組合의 意義”, 『조선일보』, 1929.11.28.

48) “京城女子消組 第一次理事會”, 『조선일보』, 1930.03.14; “女子消組 任員等選定 리사회에서”, 『중외일보』, 1930.03.14.

도 있고, 집안에서 남편 수발하고 아이 기르는 주부도 있다”⁴⁹⁾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조합원의 다양한 사회적 배경과 구성을 확인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산층 이상의 여성들만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은 점과 여성들이 중심이 되어 협동조합을 설립한 것이 “진귀한” 일⁵⁰⁾이라는 두 가지 특징으로 세간의 관심을 받았다.

창립 후 1개월도 되지 않은 1930년 4월 5일, 경성여자소비조합은 낙원동 256번지 1층에 매장을 열었다. 이곳은 경성여자소비조합의 이사 후보였던 홍사희(洪思姬)의 자택으로 2,100원에 달했다. 경성여자소비조합은 조합원의 출자로 자본금 540원을 마련했지만, 낙원동에 위치한 건물을 매입할 만큼의 자금은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런데 경성여자소비조합은 자본금 540원 중 현금 200원을 매장 확보를 위해 지불했다. 나머지 잔액은 어떠한 기관 또는 개인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 것인지 확인되지 않지만, 채무를 통해 자금을 마련했다.⁵¹⁾ 자본금의 약 3배에 달하는 금액을 빌려 매장을 마련한 것은 당시 소비조합이 농촌 지역의 작은 집 한 칸에서 시작하거나, 조합의 이용이 늘고 조합원이 증가할 때 매장을 확장한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과감하게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성여자소비조합은 창립 직후 “동양식 고전미를 띤 조그마한 조선집 한 채”를 마련하여 “화려하고도 씩씩한 새 의미의 ‘구멍가게’를 시작”했다.⁵²⁾ 경성여자소비조합이 매장을 설치한 낙원동 256번지는 종로의 중심이자, 소비 중심 지역이었다. 경성여자소비조합은 “화신상회(和信商會)요 덕원상점(德元商店)…대백화점(大百貨店)이 버티고… 진고개나 남대문동에 나서도 거대한 금융자본의 축수인 삼월(三越)이나 정자옥(丁子屋)…하늘을 찌르는 빌딩속…”에 끼어 있었다.⁵³⁾ 낙원동 근처와 남대문, 충무로 등에는 화신상회를 비롯하여 일본백화점인 미쓰코시 지점, 조지야 백화점 등이 즐비한데, 값비

49) “時相漫話”, 『별건곤』 29, 1930.06.01, 28쪽.

50) 咸尙勳, “朝鮮協同運動의 過去와 現在”, 『동광』 23, 1931.07.05, 22쪽.

51)金玉葉, “京城女子消費組合解體의 顛末”, 『신여성』 6(12), 1932.12, 61~63쪽.

52) “京城女子消費組合 訪問記”, 『삼천리』 12, 1931.02.01, 47쪽.

53) 위의 글, 47쪽.

싼 상품보다 실용적인 물품을 갖춘 작은 매장이 설치된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었다.

매장 위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운영에 유리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⁵⁴⁾ 첫째, 조합과 조합원의 지역 범위를 제한하지 않아 조합원이 매장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을 겪을 것이다. 둘째, 조합원에게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지역 범위가 넓어 결국 어려움에 처할 것이다. 셋째, 낙원동 근처에는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경쟁 상점이 많다. 넷째, 조합원이 외상으로 물품을 구입하면, 지역 범위가 넓어 자금 회수가 어려울 것이다. 위치 선정에 대한 우려로 경성여자소비조합은 개점 직후 “격렬한 상업도시 속에 끼어서 그네가 부른 이 나팔 소리가 과연 잘 울려 나갈까”라는 평을 받았다. 이때 나팔 소리란 “중간착취의 이 모든 상업기관을 내리 누르고 생산된 물품을 바로 소비자의 손에 운반”하는 것으로, 소매점 또는 중간상인에 의한 물품 가격 변동에 소비자가 능동적으로 공동 대응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초기 운영은 원활했다. 경성여자소비조합의 운영 특징은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조합원의 필요에 따른 물품을 구비하였다. 매장에는 연료(숯), 먹을거리(말린 생선, 미역, 고추타래, 두부, 깨소금, 후추, 콩나물, 김), 장류(간장, 된장), 화장품(레도크림, 구라부크림, 카자린크림 등), 간식(사탕) 등 다양한 물품이 “대가집에…설, 명절, 잔치 … 회갑까지 넉넉히 치르고 남을 만큼” 갖춰져 있었다.⁵⁵⁾ 둘째, 일반 소매점보다 낮은 가격으로 조합원에게 생활용품을 공급하였다. 예를 들어 소비조합에서는 숯 한 섬을 1원 5전으로 조합원에게 판매하였는데, 이는 다른 상점의 시가보다 15전가량 저렴했다. 또 다른 예로는 인근에 위치한 도매상과 특약을 맺어 미곡과 포목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포목의 경우 종로 대창무역회사와 특약하여 경성여자소비조합 조합원은 ‘경성여자소비조합원표’를 제출하면 최소 3부에서 최대 5부까지 할인받을 수 있었다. 미곡 또한 시가 대비 한 섬에 30전 할인이 가능하도록 특약을 맺었다.

셋째, 매장 방문이 어려운 조합원에게 배달 서비스를 제공했다. 상시적으

54) 위의 글, 47쪽.

55) 위의 글, 47쪽.

로 임원 두 명이 매장에 상주하며 운영을 맡았고, 임시 고용된 남성 배달부를 통해 자전거로 물품을 배달하였다.⁵⁶⁾ 넷째, 사업 확장을 위한 여러 방안을 마련하였다. 다양한 물품 구입과 도매상과의 특약, 배달을 통한 공급뿐 아니라 경성 시내 학교와 부인병원을 대상으로 식료품 납품을 추진했다. 대상이 된 학교는 이화전문학교, 협성여자신학교여자고등학교, 숙명여고보교, 양정고보교, 정신여학교 등이었다.⁵⁷⁾

다양한 시도와 노력을 통해 경성여자소비조합의 초기 판매고는 양호했다. 1일 판매금 20원을 달성하며 1년간 총 3할의 이익을 냈다.⁵⁸⁾ 또한 1930년 8월 21일에 이사회를 개최하여 상임위원 겸 이사장(김수준), 사무·물품 구입·외무책임(김상순), 사무·상품 진열·검사(장희연), 금전 출납(이상삼) 등으로 역할을 나눠 사업 확장을 진행하였다.⁵⁹⁾

3) 협동조합 이해와 여성운동의 연결

경성여자소비조합을 추진한 임원들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조선여자동우회와 근우회 등 여성단체에서도 주요 역할을 맡았다.⁶⁰⁾ 특히 경성여자소비조합을 추진할 당시, 황애덕, 김수준, 황신덕, 김상순, 김정원, 우봉운, 신정균은 근우회에서 주요 역할을 맡고 있었다. 근우회는 1928년 전국대회 이후 사회주의 그룹과 기독교 그룹이 갈등을 빚어 활동력이 약화 되었다는 의견

56) 『동아일보』 1930년 4월 5일자(2쪽)에는 경성여자소비조합 매장 사진이 수록되어 있다. 사진을 보면 매장 입구에 운영을 맡은 것으로 보이는 두 명의 여성과 배달을 담당하는 남성이 자전거 앞에 서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女子消組五日開店”, 『동아일보』, 1930.4.5.; “京城女子消費組合 訪問記”, 『삼천리』 12, 1931.02.01, 47쪽.

57) “女子消組擴張 구월부터”, 『중외일보』, 1930.08.22.

58) 咸尙勳, “朝鮮協同運動의 過去와 現在”, 『동광』 23, 1931.07.05, 22쪽.

59) 경성여자소비조합의 임원 구성은 두 번에 걸쳐 변화하였다. 1929년 8월 발기인회이후 1930년 3월 제1차 이사회에서 이사장(김수준), 전무이사(황애덕), 상무이사(김정원, 김상순)로 구성하였다. 1931년 2월에는 이사장과 전무이사는 동일하며, 상무이사(신정균), 이사(우봉운, 김정원 등 9명), 감사(황신덕, 한신광)가 추가되었다. 상무이사의 변동과 이사회 확대, 그리고 감사가 별도로 구성되었다.

60) 김경일 외, 『한국근대 여성 32인의 초상』,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4; 김광식, 「朝鮮佛敎女子靑年會의 창립과 변천」, 『한국 근현대사 연구』 7, 한국근현대사학회, 1997; 박용옥, 『한국여성항일운동사연구』, 지식산업사, 1996.

이 있지만,⁶¹⁾ 하동, 부산, 평양 등 근우회 지역 지회에서는 여자·부인소비조합을 모색하거나 추진하였다. 다만 경성여자소비조합의 경우 근우회가 중심이 되기보다, 소비조합에 관심을 가진 인물들이 중심이 되어 개별적으로 창립을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경성여자소비조합 임원 중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가 있는 이는 창립위원장을 맡은 황애덕이다. 황애덕은 1928년 미국에서 귀국한 후 협성여자신학교 농촌사업지도교육과 교수를 맡았고, 조선YWCA연합회 농촌부 위원으로 활동했다. 이러한 활동은 채핀 부인(Chaffin, Rev. Anna Bair 채부인蔡富仁)과도 연결된다. 미국 콜롬비아 대학에서 유학 생활을 하던 황애덕은 1927년 뉴욕에서 채핀 부인과 인연을 맺었고, 이후 한국에서 재회하여 덴마크 농촌 부흥을 분석하는 『명말나라연구』(1930) 집필에 참여했다.⁶²⁾ 이 책의 저자는 채핀 부인과 최봉칙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총 12개의 장 중 덴마크 농촌 사업의 성공 요인으로 알려진 협동조합을 다룬 10장은 황애덕이 작성하였다. 그의 이름은 책 표지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목차를 보면 그의 이름이 협동조합을 다루는 장의 편집자로 표기되어 있다. 이 장에는 협동조합의 시작, 협동조합의 사업 변천 등이 소개되어 있다.

황애덕은 한국인들에게 친숙한 조직과 협동조합을 연결하여 설명하였다. 그는 협동조합이란 “우리나라에 계(契)하는 것과 비슷한 것”⁶³⁾이며, “한 사람이 하기 어려운 일을 여러 사람이 힘을 합하여 서로 돕고 붙들어 평안히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모임”⁶⁴⁾으로 서술하였다. 또한 협동조합은 “가난한 여러 사람들이 약간 가진 돈을 서로 모아서 자본주의에 대항”하기 위해 시작한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덴마크 농민들이 재건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부족한 자본을 함께 모으고, 약한 힘을 가진 이들이 서로 협동하여 만든 협동조합으로 덴마크 농민이 성공할 수 있었기에 “협동조합은 정말농민(덴마크 농민)을

61) 黃信德, “朝鮮婦人運動은 어떻게 지나왔나?”, 『신가정』1(4), 1933.4, 35쪽.

62) 황애덕과 채핀 부인의 삶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고할 수 있다. 김성은(앞의 논문, 2011); 배운숙, 「채핀부인의 생애와 여성신학 연구」, 감리교신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131~134쪽.

63) 현재 계는契라는 한자로 표기하는데, 당시에는契와 契, 禊라는 한자를 함께 사용하였다.

64) Chaffin, Anna Bair·최봉칙, 『명말나라연구』, 조선야소교서회, 1930, 43~46쪽.

살려낸 비결”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황애덕은 협동조합이란 계와 유사한 상호부조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결사체이자 자본주의에 대항할 수 있는 조직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여러 사람이 모여 힘과 자본을 모아 어려운 일을 극복할 수 있다는 쉽고 단순한 논리로 협동조합의 개념을 소개하고 있다. 그는 소비조합이란 제 각각 구입하는데 드는 비용과 시간을 줄이기 위한 생활운동으로 서술하였는데, 이는 도시와 농촌의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는 전국 조직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황애덕은 협동조합이 농촌과 도시에 곳곳에 설립되어 지역의 생산과 소비가 연결되고, 중간거래 비용을 줄여 편리를 도모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더 나아가 다양한 분야의 협동조합이 연결하면 경제적 약자가 협동적 소비와 생산을 할 수 있어 가정경제와 민족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⁶⁵⁾

초대 이사장인 김수준은 “여성운동과 소비조합은 몸동이다”라고 하며, 여성들의 소비운동과 여성운동이 다르지 않으며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⁶⁶⁾ 그는 소비조합을 통해 여성이 “가정경제의 주인공”이 될 수 있으며, 일상 생활용품을 자주 이용하는 여성이 남성보다 소비조합과 밀접하다고 보았다. 아울러 여성들이 소비조합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것은 단순히 물품을 구입하는 것이 아닌, 조합에 참여하고 운영함으로써 사회 훈련과 경제적인 각성을 경험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언급하였다. 그는 소비조합에 참여하는 것은 일반 여성들의 지식수준과 의식을 향상하고, 단절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여성운동과 소비조합은 하나로 엮어진 ‘몸동’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김수준은 1930년 3월부터 해산 전까지 이사장을 맡으며 매장 운영을 직접 담당하였다. 조합의 홍보와 조합원 모집, 그리고 물품의 구매와 판매 등 소비기관을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그는 소비조합을 여성을 위한 경제운동이자 사회훈련의 장으로 보는 생활운동으로 이해하였다. 또한 물품이 중간상인의 손을 거처서 오기 때문에 비싼 값이 되어 “우리 생활의 적지 아니한 손실”이 생겼다고 보고, 이러한 손실을 없애기 위해서는 “한 사람 한 사람씩 따로 할

65) 황애덕, “京城女子經濟運動의 第一步”, 『青年』 10(5), 1930.07~08, 8쪽.

66) 金繡準, “消費組合의 意義”, 『조선일보』, 1929.11.28.

것 같으면 이익을 보지 못한다”고 하며 소비조합을 강조하였다.⁶⁷⁾

이처럼 경성여자소비조합에서 특히 강조한 것은 “여성의 사회적 훈련”이었다. 여성들이 소비조합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 자체가 실제 경제생활과 사회 운영 논리를 체험할 수 있는 경험의 장이라는 의미였다. 즉 경성여자소비조합의 임원들은 여성들이 소비조합을 설립하고 이용하는 경험을 통해 스스로 경제 행위에 직접 참여하여 지적 수준의 향상뿐 아니라 여성 소비자의 단결을 도모할 수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집안에서 살림을 담당하고 있던 여성은 이전 시기와 달리 상점 혹은 상인을 통해 직접 물건을 구매하는 소비자였다. 김수준은 이를 “남자는 생산자요, 여자는 소비자라할 수 있다”라며 성역할을 구분하는 발언을 하지만, 당시 대부분의 가정을 묘사한 것이다. 김수준은 이왕에 이런 상황이라면 “생활하기 위하여 소비는 하되 ... 많은 이익을 남을 주지 아니하고 우리 가정에 떨어지”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을 강조했다.⁶⁸⁾ 가정이라는 경제생활을 중심에 놓으면 남성보다 여성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존재라는 점을 부각한 것이다. 그는 “여성들은 가정경제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소비조합을 설립하여 이용하는 것 자체가 가정경제에 이익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였다.

경성여자소비조합에서 강조한 여성의 사회 훈련과 경제 행위의 참여는 당시 근우회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여성단체의 운동 영역이 경제와 소비 분야로 확대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부산 및 경상도, 평양 등에서는 근우회 지회가 중심이 되어 소비조합을 추진하였는데,⁶⁹⁾ 여성운동

67) 앞의 기사.

68) 앞의 기사.

69) 부산에서는 1928년 동래여자청년회를 해체한 후 근우지회를 설치하고, 부인소비조합을 준비했다는 기록이 있다. 경남 고성에서는 1929년 11월 근우회 고성지회 결의로 소비조합 발기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집행위원장 김경신), 1930년 3월 근우회 양산지회(위원장 배기영)에서도 여자소비조합 설립을 논의했다. 1931년 8월 21일에 창립총회를 개최한 하동소비조합은 김은례, 김정표 등이 중심이 되어 추진되었는데, 이들은 근우회 하동지회가 창립할 때부터 참여하였다. 또한 1932년 평양지회에서도 평양여자소비조합 창립준비(준비위원장 조신성)가 논의되었다. 하지만 이후 진행 상황에 대한 자료를 확인할 수 없어 창립 후 매장 운영으로 이어졌는지 파악이 어렵다. “東萊女靑解體 權友支會發起”, 『동아일보』.

이 강연회, 야학 등 계몽 활동에서 여성의 사회·경제 조직의 직접 운영으로 넓어지는 단초로 볼 수 있다.⁷⁰⁾

다만 임원 선출 과정과 배당에 관한 규정은 협동조합이 강조하는 민주적 운영과 관련해서는 부족한 지점이 있다.⁷¹⁾ 창립총회 당시 임원 선출을 이사회에 일임한 것이 그 예이다. 또한 잉여금 배당을 이용고(이용금액)를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닌, 구수제(출자금)로 적용한 것은 협동조합의 운영 원리에 대한 부족한 인식을 보여주는 지점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초기부터 경성여자소비조합이 인순고식(因循姑息)하는 것은 아닌지 지적을 받았으며,⁷²⁾ “잉여금 분배에 있어서 同소비조합은 조합원의 구매액수에 의하여 분배를 하지 아니하고 출금액수에 의하여 분배하기로 규약을 제정하였다는 것은 매우 섭섭한 소식이다.”⁷³⁾라는 비판을 받았다.

4) 운영의 위기와 한계

경성여자소비조합의 과감한 투자와 시도는 1년이 지날 무렵, 이사회 내 갈등과 매입 주택과 관련한 운영상의 문제로 발생했다. 우선 외상 문제와 회계 장부의 작성 미흡 및 오류가 축적되어 손실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결국 이사장이 책임을 지고 일부 금액을 배상했고, 세를 놓아 월세로 이를 충당하기로 결정했다. 무엇보다 매장을 무리하게 개설하는 과정에서 등기이전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소유권 명의를 변경하지 않은 것이 운영의 큰 걸림돌이 되었다.⁷⁴⁾ 소비조합의 이사 후보로 나왔던 등기상의 소유주가 이 점을 악용하

1928.04.26: “女子消組發起대회도 소집코 權友固城支會決議”, 『동아일보』, 1929.11.16: “河東에 婦人消費組創立”, 『조선일보』, 1931.08.26: “平壤女子消組 創立을 準備”, 『동아일보』, 1932.09.17.

70) 근우회 지회 활동과 소비조합 시도를 여성운동의 확장으로 보기 위해서는 지회 중심의 여자 소비조합 사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는 차후 연구에서 진행하도록 하겠다.

71) 1920년대부터 한반도에는 영국 소비자협동조합인 로치데일공정개혁자회의 원칙이 알려졌고, 관제 협동조합을 비판하는 원리로 활용되었다. 로치데일 원칙(Rochdale Principles)은 1937년, 국제협동조합연맹에서 논의를 거쳐 협동조합 7원칙으로 수정·채택되었다. 로치데일 원칙은 ①개방된 조합원 제도, ②민주적 관리(1인 1표), ③이용에 따른 이윤 배당, ④자본에 대한 제한된 이자, ⑤정치적, 종교적 중립, ⑥현금 거래, ⑦조합원 교육 촉진이다.

72) “時相漫話”, 『별건곤』 29, 1930.06.01, 29쪽.

73) 石南, “消費組合小論”, 『별건곤』 31, 1930.08.01, 51쪽.

여 사채 800원을 빌렸고, 결국 낙원동 소비조합 매장에는 집행 딱지가 붙고 세를 살던 이들은 거리로 쫓겨났다.

이사들은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사채 800원을 떠안기로 결정하고, 협상을 진행했다. 소비조합 상무 김상순 등은 매장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이틀간 밤을 새우며 매장을 지켰으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⁷⁵⁾ 1931년 6월 매장 사수를 위한 소란 이후, 경성여자소비조합은 안정화의 가능성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 결국 1932년 10월 24일, 조합의 경영 부진과 사업 대책을 협의하는 임시총회가 개최되었고, 조합원들에게 상황을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⁷⁶⁾

스웨덴 유학 시절, 여성들의 협동조합 참여를 인상 깊게 본 최영숙이 경성여자소비조합을 인수하기로 결정하였다.⁷⁷⁾ 최영숙은 경제적 사정이 좋은 편은 아니었으나, 여성들이 주도한 소비조합이 지속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손해가 될 줄 알면서 그 일을 위하여 변통”하여 경성여자소비조합을 인수하였다.⁷⁸⁾ 그는 단순히 개인의 영리 추구를 위해 경성여자소비조합을 인수한 것이 아니었다. 최영숙은 “독일, 덴마크, 스웨덴 등지에서는 여자소비조합의 세력이 여간 위대”하다는 경험을 밝히며, 조선 여성들의 경제 상식을 높이기 위하여 “지식 계급에 있는 선진 여성들이 소비조합운동 같은 것을 맹렬히 해야”하며, “강좌나 연설회”를 개최하고, “기관지도 있어야”함을 강조했다.⁷⁹⁾ 하지만 최영숙은 이른 시기에 사망했고, 경성여자소비조합의 활동은 이어지지 못했다.

74)金玉葉, “京城女子消費組合解體의 顛末”, 『신여성』 6(12), 1932. 12, 61~63쪽.

75) 앞의 글, 61~63쪽.

76) 1932년 10월 24일 오후 7시, 공평동 43번지 근우회관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였다. “女子消費組合”, 『동아일보』, 1932.10.25.; “女子消組總會”, 『매일신보』, 1932.10.24.

77) 이효진(2018)은 『삼천리』에 게재된 최영숙과 관련된 내용이 허구의 소설이라 지적하며 그의 생애를 정리하였다. 이효진, 「신여성 최영숙의 삶과 기록: 스웨덴 유학 시절의 신화와 루머, 그리고 진실에 대한 실증적 검증」, 『아시아여성연구』 57(2), 숙명여대 아시아여성연구원, 2018, 143~174쪽.

78) 一記者, “經濟學士 崔英淑女士와 印度青年과의 戀愛關係의 真相”, 『동광』 34, 1932.06.02, 37쪽.

79) “婦人問題에 대한 批判”, 『삼천리』 4(2), 1932.2.1.

이후 1933년 1월, 조선여자소비조합이 창립하여 경성 지역에서 다시 여성들의 경제적 연대가 추진되었다. 조선여자소비조합은 1933년 1월, 김이수(金尼洙), 오덕권(吳德券), 이영숙(李英淑), 권경옥(權景玉), 장세량(張世良), 홍은순(洪銀順) 등이 발기회를 결성하여, “가정생활의 보건을 위하여 실비 진료를 하고 가정 생활 소비의 필수품을 최저 시가로 공급”을 목표로 조합원 130여 명이 모여 태평동1정목(현재 태평로2가 인근)에 창립하였다. 조선여자소비조합은 이용고에 의한 배당을 원칙으로 했으며, 물품 공급 외에 의료기관 설립 등 보건과 돌봄의 영역에도 관심을 가졌다. 또한 1934년 7월 수해 당시, 이재민을 위하여 의복 292건과 백미 3승, 현금 4원 8전⁸⁰⁾을 기부하는 등 지역사회 활동에도 참여하였다.⁸¹⁾

4. 일제하 경성 지역 여자소비조합의 특징

경성 지역의 여자소비조합은 여성의 주도적 참여와 운영으로 중요성이 강조되는 동시에 미숙한 운영으로 비판을 받기도 했다. 당시 민간 협동조합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협동조합운동사의 함상훈은 경성여자소비조합이 창립한다는 소식을 들은 후 “여성계의 협동조합 설립을 본 것은 실로 진귀한 사실”⁸²⁾이라고 언급했다. 경성여자소비조합 이후 조선여자소비조합의 창립에 대해서도 “경성 시내의 가정 부인 200여 명이 소비생활의 합리화를 위하여 소비조합을 창립하였다 함은 근래의 희소식 중 하나”⁸³⁾라는 기대를 받았다. 여성의 소비조합 결성은 가정 소비경제의 합리화를 위한 시급한 생활의 문제에 여성과 주부가 참여함으로써 큰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전국적 보급의 필요성이 강조되기도 했다. 반면 “사회적으로 뒤떨어진 여자의 하겠다는 일이라 말만 들어도 찬의를 표하고 싶다”⁸⁴⁾라는 식의 여성의 사회 의식과 참여

80) “安息敎, 病院, 學校에서 二百五十圓을 義捐”, “至誠의 各洞會救濟品”(세 번째 사진), 『동아일보』, 1934.08.09.

81) 지면의 제한과 자료의 한계로 조선여자소비조합은 별도 논문에서 다루고자 한다.

82) 咸尙勳, “朝鮮協同運動의 過去와 現在”, 『동광』 23, 1931.7.5, 22쪽.

83) “女子消費組合”, 『조선일보』, 1933.1.12.

에 대한 조롱을 받으며 조합을 추진하기도 했다.

경성 지역에서 진행된 여성의 소비조합 추진은 성공과 실패를 논하기보다는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특징을 도출할 수 있다. 피식민지 여성들이 주도적으로 협동조합 설립을 추진하고, 오직 여성만으로 조합원을 구성하여 협동조합을 설립한 것은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제1차세계대전 직후인 1920년부터 유럽을 중심으로 일상용품 및 식료품 가격 급등과 중간거래상의 폭리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비자협동조합이 증가했다. 당시 영국과 미국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협동조합의 임원과 주요 운영 주체는 남성이었다. 국내의 대부분의 협동조합은 남성 조합원이 중심이 되어 설립되었고, 이사회는 다수는 남성으로 구성되었다. 일반적으로 여성들은 조합원 모임의 하나인 부인회에 참석하거나, 남성 가장의 이름으로 물품을 구매했다.

협동조합이 가장 발달한 영국에서는 남성 중심의 운영을 비판하며 여성협동조합길드(Women's Co-operative Guild)가 설립되었다. 협동조합 원칙과 운영 방식 확산에 큰 영향을 끼친 영국 로치데일공정개혁자회(Rochdale Equitable Pioneers' Society)는 1844년 설립 당시, 성별과 관계없이 모든 구성원이 평등하다는 원칙을 명문화했다. 하지만 19세기 중엽 영국에서는 가장인 남성이 재정적인 권한을 갖고 있었고, 여성이 단독 명의로 조합원에 가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 여성들은 단순히 바느질하거나 바구니를 들고 구매만 하는 것이 아닌, 여성의 협동조합 참여와 권리를 주장하며 1883년에 여성동맹(Women's League)을 결성한 후 1921년에 국제여성협동조합길드(International Co-operative Women's Guild)를 설립했다. 이를 통해 여성의 협동조합 참여뿐 아니라 노동계급 여성의 법적·정치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주장하며 1928년 여성의 보통선거권 승인을 이끌었다.⁸⁴⁾ 이외에 미국 뉴올리

84) “女子消費組合”, 『동아일보』, 1933.1.11.

85) 여성길드는 노동계급여성의 위험한 낙태를 막기 위해 피임과 출산, 양육, 성 건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캠페인을 펼쳤다. 또한 Shipley Society를 조직하고 협동산부인과센터(co-operative maternity care centre, 1920)를 열었다. 이 외에 제1차세계대전을 겪으며 평화운동과 군축캠페인 등을 추진했고 1937년에 런던 협동조합평화퍼레이드에 참여했다. 영국 협동조합에서 여성의 역할이 강조되고, 별도의 조직이 결성되는 과정 및 여성협동조합길드 활동에 관해서는 다음의 연구를 참고하였다. Blaszak, B.J., “The Women's Cooper

언스에서는 1910년~1915년 사이 심각한 경제불황과 식량부족에 직면하였지만, 시장 통제가 시행되지 않던 상황이었다. 이때 주부연맹(Housewives' League)은 물가를 바로잡기 위한 일환으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연대하여 1915년부터 협동조합을 운영하였다.⁸⁶⁾

일본에서는 국가 정책으로 농촌 지역에 산업조합이 설립되는 동시에 도시 거주민이 소비 영역에 대응하기 위한 협동조합이 설립되었다. 특히 제1차 세계대전 직후부터 도시에 거주하는 봉급생활자를 중심으로 물가 상승에 대응하는 구매·소비조합이 설립되었다. 일본에서는 1920년대 후반부터 남성 셀러리맨의 증가와 함께 전업주부가 늘어났는데, 이들을 중심으로 조합이 설립되었다. 구매조합에서는 여성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가정회, 부인회를 설치하였고, 주부들이 참여하기 시작했다.⁸⁷⁾

구매·소비조합의 가정회 또는 부인회는 조합 내 여성들의 생활 향상을 위한 활동인 동시에 조합원 활동의 장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었다. 가정구매조합 부인회에서 발행한 팜플렛 〈ホーム・ユニオン Home Union〉의 주요 내용은 균형 잡힌 식생활과 식재료 안내, 소비절약, 저축 강조 등이었다. 일본 소비조합의 연합체인 관동소비조합연맹(關東消費組合聯盟)에서는 1927년 부인부를 조직하여 요리강습회, 꽃꽂이, 어린이 교육 강좌 등을 기획했다.⁸⁸⁾ 이후 일본 소비조합여성협회가 1936년에 설립되어 여성의 주도로 협동조합이 운영되는

ative Guild, 1883~1921”, *International Social Science Review*, Vol. 61, No. 2, SPRING, 1986; Blaszak, B.J., *The matriarchs of England's cooperative movement a study in gender politics and female leadership, 1883~1921*, Westport: Greenwood Press, 2000; Hilson, Mary(eds), *A Global History of Consumer Co-Operation since 1850: Movements and Businesses*, Leiden: Brill, 2017, pp.73~74; Co-operative Heritage Trust(<https://www.co-operative-heritage.coop/blog/the-story-of-the-co-operative-womens-guild>, 검색일: 2024.05.28.)

86) Anne M. Gessler, “Warriors for Lower Prices: The New Orleans Housewives’ League and the Consumer Cooperative Movement, 1913~1921”, *The Journal of Southern History*, Vol. 83, No. 3, August, 2017, pp.581~588.

87) 그 예로 1924년 7월 고베소비조합 가정회(神戸消費組合家庭会), 가정구매조합 부인회(家庭購買組合婦人会), 1929년 8월 나다구매조합(灘購買組合) 등이 있다. 小嶋 翔, 『戦前最大の生協, 家庭購買組合』, 『生活協同組合研究』 574, 東京: 生協総合研究所, 2023, pp.32~39 참고.

88) 1937년부터 구매조합의 부인회는 출정 군인 가족의 위문 활동을 하였다.

기초를 마련했지만,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활동은 이어지지 못했다.

이와 같이 협동조합이 발달한 영국과 여성협동조합길드의 영향을 받은 일부 지역, 주부연맹의 활동이 활발했던 미국의 특정 지역 등을 제외하면, 협동조합의 주요 참여자는 남성이었다.⁸⁹⁾ 협동조합 내에서 여성은 남성 조합원 가족 중 한 명으로 의사 결정권 없이 이용하거나, 부인회에 가입하여 취미활동에 참여하는 정도였다. 개방적인 멤버십이 협동조합 원칙 중 하나였으나, 여성이 조합원이 되어 운영에 참여하고 더 나아가 여성이 직접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은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드문 사례이며, 피식민지에서는 더욱 찾아보기 어렵다.⁹⁰⁾

이를 참고하여 일제하 경성 지역의 여성이 주도한 협동조합은 다섯 가지 특징을 갖는다. 첫째, 식민 지배하에서 매장 개설 등 사회경제 활동에 여성이 직접 참여하여 소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둘째, 여학생, 주부, 직업 여성 등 구성원의 폭이 넓었으며, 지식인 여성에 국한된 활동이 아니었다. 셋째, 피식민지 여성들이 주도하고 여성들만으로 구성하여 운영된 이례적인 사례였다. 넷째, 여성단체 등 다양한 활동 배경을 가진 이들이 협동조합을 추진

89) 세계 소비자협동조합 역사를 통사적으로 다룬 저서에서도 젠더 문제를 간과했으며 앞으로 보완할 부분으로 언급하였다. 또한 지금도 협동조합의 여성 참여와 관련해서는 여러 논의가 진행 중이다. 소비자협동조합은 여성이 조합원 다수를 차지하지만 경영진 대부분은 남성으로 구성된다는 점, 그리고 농업과 관련된 생산자협동조합에서 여성이 농업 참여 비중이 크지만, 남성 중심으로 조합원 가입이 진행된다는 점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또한 일부 국가에서 종교, 문화적 성차별로 인해 여성의 참여가 배제되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 여성협동조합을 설립하는데, 국제협동조합연맹(ICA)에서는 이를 협동조합 원칙(제1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여성이 사회에서 부딪치는 차별과 불합리에 대해 직접 대응한 행위이기 때문에 1원칙에 부합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Hilson, op.cit., pp.10~11; ICA, *The Guidance Notes on the Cooperative Principles*, Brussels: ICA, 2015, pp.10~11.

90) 1850년 이후 여러 국가의 소비자협동조합 역사가 연구 중이지만, 유럽과 북미와 달리 남반구와 동유럽 등은 자료와 사례가 부족하여 충분히 다루이지 않았다. 참고로 대만의 경우 일본의 식민지배를 받던 1913년에 대만산업조합규칙이 시행되고, 1934년에 합작사법을 제정하였다. 하지만 민간의 활동이나 여성의 참여는 아직 충분한 연구가 되지 않았다. 또한 20세기 초 영국의 식민지와 프랑스 식민지 지역에서도 협동조합이 설립되었는데, 이와 관련된 전개 과정은 확인할 수 있으나 여성의 역할 및 참여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식민지배와 협동조합의 문제에 대해서는 기초적인 질문을 던진 단계로 볼 수 있다. Hilson, op.cit., pp.11~12, pp.35~37.

하기도 했지만, 단체의 지원이나 사업과는 별개로 소비 문제에 초점을 맞춰 개별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사업체를 추진하고자 하였다. 다섯째, 소비조합을 통해 사업 운영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여성운동의 범위가 확대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5. 나가며

일제하 주부들이 가정 내에서 경제 관리의 주체이자 소비의 주체로 강조되기 시작한 것은 1920년대 후반부터 1930년대 초기였다. 현실에서는 남성이 경제생활을 책임지는 역할을 맡았는데, 세계대공황 등으로 경제가 악화되면서 살림살이를 주로 챙기는 (시)어머니가 이를 대신하기도 했다.⁹¹⁾ 가정에서 살림을 주로 담당하는 여성에게 경제적인 자각이 필요하다는 담론이 제기되었지만, 실제로 여성이 소비와 경제 행위에 직접 관여하기는 쉽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1920년대부터 전개된 일제하 여자소비조합의 설립은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다. 가정에 머무르는 방식 외에는 다른 경제 활동의 참여가 어려웠던 여성들이 직접 사회·경제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스스로 마련했기 때문이다. 특히 경성여자소비조합과 조선여자소비조합은 출자금을 확보한 후 도시 중심에 매장을 개설하고, 다양한 품목과 서비스를 조합원에게 제공했다. 소규모 자금을 여성들이 직접 모아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확대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모색했다.

물론 발기인회를 구성한 후 창립하지 못하거나, 성공적으로 운영을 이어가지 못한 사례도 있다. 사업이 안정화되기 전까지 이용고 배당이 아닌 출자금 배당을 한다는 등의 운영 전략은 협동조합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았다. 아울러 지역 범위를 한정하지 않아 조합원 범위가 넓어져 이용의 어려움이 발생하거나, 이러한 점 때문에 사업 확장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또한 자금 운영과 경영의 미숙함으로 확장 가능성이 있었던 사

91) 이영아, 「한국 근대 초기 ‘주부’ 개념의 도입 양상-1900~1910년대를 중심으로」, 『구보학보』 25, 구보학회, 2000, 226쪽.

업이 갑자기 어려움에 빠지기도 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경제적 자각을 높이고, 사회 위기 속에서 일상생활의 경제적 연대를 시도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1933년에 이르러 가정 주부 등 여성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소비자협동조합과 같은 시설을 여성들이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와 관련된 지식을 꾸준히 얻는 것이 필요하다는 담론도 제기되었다.⁹²⁾ 이러한 담론은 여성들이 주도하여 경제 조직체를 만든 경성여자소비조합, 조선여자소비조합 등이 있었기에 실현 가능성이 모색된 것이다.

앞으로 이 연구는 지리적 범위를 확대하여 평양, 원주, 정평 등 여성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협동조합 사례를 살펴보는 동시에 근우회 지회 활동과의 연결성을 파악하여 여성운동의 확장을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연이은 세계 대전과 물가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여성의 역할을 협동조합 사례를 중심으로 비교사적 접근을 하고자 한다.

92) 金元經, “主婦와 經濟 下”, 『동아일보』, 1934. 10. 20.

참고문헌

1. 사료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외일보』, 『매일신보』, 『학지광』, 『산업계』,
『신여성』, 『별건곤』, 『동광』, 『삼천리』, 『신가정』, 『청년』.

2. 논저

- 강영경 외, 『한국 여성사 연구 70년』,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7.
- 김경일 외, 『한국근대 여성 32인의 초상』,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4.
- 김경일, 『여성의 근대, 근대의 여성』, 푸른역사, 2004.
- _____, 「서울의 소비문화와 신여성: 1920~1930년대를 중심으로」, 『서울학연구』 19, 서울시립대 서울학연구소, 2002.
- 김광식, 「朝鮮佛敎女子靑年會의 창립과 변천」, 『한국 근현대사 연구』 7, 한국근현대사학회, 1997.
- 김권정, 「1920~30년대 한국기독교의 농촌협동조합운동」, 『승실사학』 21, 승실사학회, 2008.
- 김성은, 「1930년대 황애덕의 농촌사업과 여성운동」, 『한국기독교와 역사』 35,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11.
- _____, 「1920~30년대 미국유학 여성지식인의 현실인식과 사회활동」,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 _____, 『한국 근대 여성지식인』, 경인문화사, 2023.
- 김성은·김지희, 「1920~30년대 경성 남촌의 백화점과 신여성의 공간(재)생산에 관한 탐색적 연구」, 『미디어, 젠더&문화』 38(2),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2023.
- 김수진, 『신여성, 근대의 과잉』, 소명출판, 2009.
- 김이경, 「일제하 한국 협동조합운동의 형성과 전개: 개념·주체·연대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2a.
- _____, 「일제하 경상북도 함창협동조합 설립과 모델의 확산」, 『인문과학』 86, 성균관대 인문학연구원, 2022b.
- 김인덕, 「1930년대 중반 오사카 재일조선인의 삶과 상호부조」, 『자울과 연대의

- 로컬리티』,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6.
- 김현숙, 「일제하 민간협동조합운동에 관한 연구」, 『사회와역사』 9, 한국사회사학회, 1987.
- 박용옥, 『한국여성항일운동사연구』, 지식산업사, 1996.
- 박현옥, 「경성여자상업학교 맹휴를 통해 본 여학생의 사회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83,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23.
- _____, 「일제하 경성의 자본주의 소비문화와 여자실업학교」, 『서울과 역사』 113, 서울역사 편찬원, 2023.
- 배운숙, 「채핀부인의 생애와 여성신학 연구」, 감리교신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 서지영, 「소비하는 여성들: 1920~30년대 경성과 욕망의 경제학」, 『한국여성학』 26(1), 한국여성학회, 2010.
- 이미연, 「일제시대 여성 소비조합과 해방 후 1960~70년대 여성 소비조합 운동」, 『한국 생활협동조합운동의 기원과 전개』, 푸른나무, 2012.
- 이입하, 『일제에 맞선 페미니스트』, 철수와영희, 2023.
- 이효진, 「신여성 최영숙의 삶과 기록: 스웨덴 유학 시절의 신화와 루머, 그리고 진실에 대한 실증적 검증」, 『아시아여성연구』 57(2), 숙명여대 아시아여성연구원, 2018.
- 이영아, 「한국 근대 ‘주부’ 개념의 정착과 주부 역할의 변화 양상」, 『구보학보』 25, 구보학회, 2020.
- 오미일, 「협동조합론과 협동조합운동」, 『경제운동』,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2008.
- 전경옥 외, 『한국 근현대 여성사-정치·사회1』, 모티브북, 2011.
- 정요섭, 『한국여성운동사』, 일조각, 1974.
- 정현백 외, 『글로벌시대에 읽는 한국여성사』, 사람의무늬, 2016.
- 정혜경, 「1930年代 初期 오사카(大阪)地域 協同組合과 朝鮮人運動」, 『한일민족문제연구』 1, 한일민족문제학회, 2001.
- 조성운, 「日帝下 朝鮮農民共生組合의 組織과 活動」, 『동학연구』 13, 한국동학학회, 2003.
- 조형열, 「협동사회 실현을 위한 협동조합운동사의 도전기」, 『한국 협동조합운동

- 100년사 I』, 가을의아침, 2019.
- 한형성, 「1920~30년대 가정회계와 가계부 담론」, 『경영사연구』 30(3), 한국경영사학회, 2015.
- _____, 「1920~30년대 한국인 가정의 경제생활」, 『史林』 55, 수선사학회, 2016.
- 현명호, 「1920년대 일본 노다와 조선 원산의 노동조합운동 비교: 노동학교, 소비조합, 어용노조를 중심으로」, 『역사연구』 46, 역사학연구소, 2023.
- 小嶋 翔, 「戦前最大の生協, 家庭購買組合」, 『生活協同組合研究』 574, 東京: 生協総合研究所, 2023.
- Anne M. Gessler, “Warriors for Lower Prices: The New Orleans Housewives’ League and the Consumer Cooperative Movement, 1913~1921”, *The Journal of Southern History*, Vol. 83, No. 3, August, 2017.
- Blaszak, B.J., “The Women’s Cooperative Guild, 1883~1921”, *International Social Science Review*, Vol. 61, No. 2, SPRING, 1986.
- _____, *The matriarchs of England’s cooperative movement a study in gender politics and female leadership, 1883~1921*, Westport: Greenwood Press, 2000.
- Chaffin, Anna Bair · 최봉칙, 『덩말나라연구』, 조선야소교서회, 1930.
- G. D. H. Cole, *A Century of Co-operation*, 정광민 옮김, 『영국 협동조합의 한세기』, 그물코, 2015.
- ICA, *The Guidance Notes on the Cooperative Principles*, Brussels: ICA, 2015.
- Hilson, Mary(eds), *A Global History of Consumer Co-Operation since 1850: Movements and Businesses*, Leiden: Brill, 2017.

3. 기타 자료

www.co-operativeheritage.coop (검색일: 2024.05.28.)

〈Abstract〉

The Development and Characteristics of the Women's Consumer Cooperatives Movement in Gyeongseong under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Kim, Yi-Kyung

This study examines women's economic solidarity and progress through the formation of women's consumer cooperatives in the Gyeongseong from the late 1920s to the early 1930s. Of the more than 500 private cooperatives established under Japanese rule, at least 16 were women-led, women-only consumer cooperatives. Women collectively tried to solve price and consumption problems through consumer cooperatives, a process that allowed them to directly participate in the social economy and unite women consumers. The development of these women's consumer cooperatives has been characterized by five features. First, they sought to solve the problem of consumption under colonial rule by directly engaging women in socioeconomic activities. Second, they included a wide range of participants, not only intellectual women but also schoolgirls, housewives, and professional women. Third, a comparative review of the world's cooperative history shows that this was an unusual case, led by colonized women and organized and run by women only. Fourth, it was not a response organized by a women's organization but rather an individual initiative focused on consumption issues and business promotion. Fifth, the direct participation of women in business operations through consumer cooperatives demonstrated the expanding scope of the women's movement.

* Key Words: Cooperative, Women's Consumer Cooperative, Gyeongseong Women's Consumer Cooperative, Economic Solidarity, Women's Movement

· 논문투고일: 2024년 06월 16일 · 심사완료일: 2024년 07월 22일 · 게재결정일: 2024년 07월 25일